허윤홍 "고객지향·신뢰가치 담아, 실질적 혁신 보여줄 것"

〈GS건설 대표〉

GS건설 '자이 리이그나이트'

22년만에 자이 브랜드 리뉴얼
프리미엄 이미지 강화 의지
특별한 일상경험 제공 목표
무리한 확장보다 내실 강화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18일 서울 강남구 자이갤러리에서 진행된 '자이 리이그나이트(Xi Re-ignite)' 행사에서 새로운 자이(Xi) BI와 로고를 선보이고 있다. /GS건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더 이상 공급자 관점의 브랜드는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며 "고객지향과 신뢰의 가치를 담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서 진행된 '자이 리이그나이트(Xi Re-ignite)' 행사에서 "자이(Xi) 리브랜딩은 단순한 이미지 변화가 아닌 근본을 튼튼히 하는 밑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자이 브랜드의 새 단장을 선언하는 자리다. GS건설이 자이 브랜드 리뉴얼에 나선 것은 지난 2002년 런칭 후 22년 만이다.

가장 큰 변화는 브랜드의 방향성이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기존 자이가 '특별한 지성(eXtra Intelligent)'으로 공급자적 관점이었다면 새로운 자이는 '일상이 특별해지는 경험(eXperience Inspiration)'으로 고객의 삶을 중심에 뒀다.

허 대표는 "기업이 혼자 만들어 출시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과 임직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자이 리브랜딩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자 도전으로 앞으로 규모 면에서 최고의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부터 협력사까지 함께 만들고 성장하는 상생과 협력의 브랜드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브랜드 리뉴얼은 일단 브랜드 교체나 추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자이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다.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기존 브랜드 외에 하이엔드 브랜드를 별도로 내세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다 지난해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일각에서는 브랜드 교체 가능성도 거론됐었다.

이상의 GS건설 도시정비기획 담당은 "기본적으로 자이라는 브랜드가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두 개의 브랜드를 운영할 경우 하이엔드 브랜드 외의 브랜드는 가치가 하락될 수 밖에 없다"며 "많은 고민에도 불구하고 단일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기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욱 발전시켜 한단계 더 높은 주거 경험을 선사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줄곧 현장경영을 강조해 왔다. 올해 시무식도 현장에서 가졌다.

그는 "그간 고객과 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와 혁신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집중했다"며 "실제 임직원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도출했고,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것도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져간다는 방침이다.

허 대표는 "주택 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GS건설에 대한 신뢰를 쌓도록 하고 실적으로 보여준다면 기업가치 면에서나 어려운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분야로 진출이나 투자도 하지만 과거 플랜트 수주 경쟁처럼 무리한 확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자이의 로고는 기존의 곡선이 상징하는 우아하고 섬세한 이미지를 계승하지만 현대적이고 간결한 직선 요소와 두께감을 더했다. 강인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색상도 기존 대비 좀 더 짙게 더해 깊어진 브랜드 정신을 표현했다.

새로운 자이(Xi) 로고는 이날 브랜드 리뉴얼 선포식 이후 분양하는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장기적인 투자·성장에 역량 배분하겠다"

신학기 수협은행장 취임

차별화·소통강화·협력 약속

신학기 수협은행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주전환의 적임자로 낙점된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앞서 강신숙 전 은행장이 수협은행의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만큼 어깨가 무겁다.

18일 송파구 수협은행 본점 2층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 행장은 '차별화'를 강조하며 "변해야한다. 조직과 내가 바뀌겠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반복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며 "시중은행과 동일한 방법으론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행장은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투자와 성장에 역량을 배분하겠다"며 "영업점에 방문하는 본부부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선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임식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도 참석했다. 노 회장은 "신학기 은행장 임기 중에 수협은행이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며 "반칙 없는 비합리적인 틀에서 벗어나 진짜 멋진 수협, 괜찮은 은행을 만들어달라"고 조언했다.

신학기 신임 수협은행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수협은행

신 행장은 1968년생으로 고향은 경상남도 창녕이다. 동아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했다. 이어 ▲리스크관리부장 ▲심사부장 ▲전략기획부장 ▲대관 담당 등 요직을 역임했다. 수석부행장직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수행했다. 수협은행 내부적으론 전략과 재무를 총괄한 '재무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신 행장은 수협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가 인선 절차를 1차에서 끝냈다. 그간 인선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번 행장 인선에는 임기 기간 호실적을 낸 강신숙 전 행장 또한 도전장을 던졌지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지주전환 성과 부진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신 행장의 우선 과제는 수협은행의 지주전환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협은행은 지난 2022년 9월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상환하면서 총 1조1581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 모두 갚았다. 이후 강 전 행장 체제에서 지주전환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남다른 공을 들였지만 자회사 M&A(인수합병)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의 시너지도 관건이다. 노 회장과 강 전 행장의 경우 '현장 중심 경영'에서 궤를 함께했다. 아울러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당선되면서 곧 임기 3년 차에 접어든다.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오는 2027년 2월까지다. 사실상 임기 종료까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수협은행장인 셈이다.

한편, 신 행장의 임기는 2년이다. 수협은행의 지속 가능 기반 형성을 강조한 만큼 금융권에서는 지주 전환을 위한 인수 합병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토스뱅크,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조성 앞장

서울시와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맞손

토스뱅크가 서울시와 함께 공정한 근로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토스뱅크와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개발·보급·확산 등 건전한 근로계약 문화 조성 전반을 위해 협력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는 등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토스뱅크는 이를 '쉬운 근로계약서'에 담아 확산한다.

구체적으로 토스뱅크의 쉬운 근로계약서는 내년 1월부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더해 청소년과 시간제 근로자, 웹툰 보조작가와 간병인까지 확대한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말 사회공헌 전문 브랜드 위드 토스뱅크를 선언하고 '쉬운 근로계약서'를 선보인 바 있다.

근로계약 체결을 원하는 누구나 손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근로자와 사장님 누구나 토스 앱 내 '전체 탭'에서 이용 가능하다. 토스뱅크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서명만 진행하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부터), 피터 람(Peter Lam) 홍콩 무역발전국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마가렛 퐁(Margaret Fong) 상임이사가 조찬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홍콩서 시니어 자산가 특화금융 준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홍콩 무역발전국 회장과 협력
현지에 글로벌 PB 전진 배치

"홍콩에도 글로벌 프라이빗뱅킹(PB)을 배치해 한국 교민뿐만 아니라 홍콩의 시니어 자산가를 위한 특화 금융 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

하나금융그룹은 18일 함영주 회장이 '피터 람 홍콩 무역발전국 회장과 조찬미팅'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팅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홍콩과 한국 간의 경제 및 금융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콩 무역발전국은 홍콩 무역 증진과 홍보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중국내 13개의 지사를 포함해 전 세계 50여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이날 함 회장은 국내 금융사 중 가장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중인 하나금융 글로벌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하나금융은 전세계 26개 지역 221개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터 람 회장은 "한국과 홍콩은 경제적,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협력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며 "한국이 선도중인 ESG, 핀테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한국은 과거에 정부 주도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이제는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국제 금융의 중심지이자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인 홍콩과 한국의 다양한 금융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 회장은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자, 지난 10월 그룹의 미래 핵심전략으로 론칭한 시니어 특화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를 소개했다.

현재 홍콩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재테크, 연금, 보험, 신탁, 헬스케어, 주거 등 시니어들의 주요 관심사에 집중되고 있다.

함 회장은 "하나금융은 은행, 증권, 보험 등 핵심 계열사가 보유한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나 더 넥스트'를 통해 시니어 세대의 라이프 사이클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홍콩에도 글로벌 PB를 전진 배치해, 한국 교민뿐만 아니라 홍콩의 시니어 자산가를 위한 특화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